

군중영화 '마누샤' 시사회 수기사에서 열려

## “제 상황과 비슷해 공감가요”

12월 17일 오후 4시 경기도 가평 수도기계화사단(이하 수기사) 사령부 맹호교육관 2층. 500여 장병들과 장교들이 조용히 앉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단장이 마지막으로 자리에 앉자 잠시 후 교육관 안에 불이 꺼졌다. 국방부 최초의 외주 제작 군중영화인 '마누샤' 공개 시사회가 시작됐다.



‘마누샤’는 인도어로 ‘사람’을 뜻한다. 평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의문하고 갈등하는 존재를 표현한 것이다. 살아가면서 겪는 고뇌 섞인 갈등과 의문들에 대해 불교적인 해법을 제시한다는 것이 이번 영화 제작의 의도다. 젊은 나이에 군에 들어가 급속히 다스려진 생활을 해야 하는 장병들의 현실에 맞게 구성됐다. ‘마누샤’는 한 부대에서 함께 생활하게

상처처럼 남아 서로를 괴롭힌다.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지만 갑작스런 여동생의 죽음으로 서재식 일병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마저 빼앗겼다. 설상가상으로 형(소대장)과 남동생(서재식 일병)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별하게 된다. 특히 서 일병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분노와 여동생을 죽게 만들었다는 자책감에 방황하다가 군대까지 와서도 몽유병 환자 증세를 보이는 등 문제 병사로 낙인찍혀 주변의 주목을 받았다. 그가 배치 받은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있는 이복형을 우연히 만나지만, 서로에 대한 오해와 미움은 풀릴 줄 모르고 더욱 증폭돼 간다.

에서 폭소가 간간히 터져 나왔다. 영화 내용이 웃기는 장면이 아닌데 이상해서 그런 유를 물어보니 고개가 끄덕여 졌다. 이번 영화의 80% 이상을 이곳 수기사에서 실제 군부대 장병들과 함께 촬영했는데 안면이 있는 동료가 심각한 역으로 나오니까 웃음이 폭발한 것이다. 내용 자체는 다소 진부했지만 스토리 전개와 주연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이 뒷받침돼서인지 지루하다는 느낌은 덜 들었다. 그래서일까? 영화관에서 자주 목격되는 조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시사회를 끝마친 병사들의 반응은 저마다 제각각이었다. “내용이 제 상황과 비슷한 면이 많아 공감이 갑니다.” “조연으로 나온 정다혜가 역시 제일 이쁘네요.” “형제가 같은 부대에 있다는 설정이 조금은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찍어서인지 배경이 눈에 익어 한결 친근감이 듭니다.” 등등.

이번 영화는 지난 5월부터 시나리오 집필에 들어가 9월부터 촬영을 시작, 지난 11월 29일 완성돼 국방부에서 첫 시사회를 가졌다. VTR 60분물로 총제작비가 1억 8500만원이 투입됐다. 나경민, 정재근, 정호근, 정다혜 등 이렇다할 특출한 스타는 없었지만 국방부 시사회에서도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는 호평을 받았다. 최진철 코리안미디어 제작이사는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활동하면서 탄탄한 연기경력을 쌓아온 배우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다”며 “특히 이번 군중법사들이 철저하게 감수를 해 줘 종교적인 깊이를 표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사회를 지켜본 일반 군중교구장 스님은 “군중 영화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진 줄은 몰랐다”며 “불교를 직접 내세우지 않더라도 보는 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내용이 곳곳에 스며 있어 종교가 다른 장병들도 부담 없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 60분량 제작비 1억8500만원 처음으로 외주 제작사 제작

된 이복형제의 갈등과 오해, 그리고 화해가 주된 줄거리였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른 세 남매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겪는 문제들이 성장하면서까지 아들이 않은

하지만 군법사의 도움과 이복형의 노력으로 서 일병의 갈등이 해소된다는 내용이었다. 영화가 상영되는 60분 동안 교육관 곳곳

잔 9월 크랭크 인 때부터 한달동안 영화 제작 현장을 지켜 본 이익수 법사(수기사 법당 호국연호사 주지)는 “이곳 수기사는 국군 최초의 장설부대이자 최초 해외 파병부대 등 우리나라 국군을 상징할 수 있는 이력들이 많아 제작사 측에서 촬영지 보원이 제작하면 관행을 벗어나 일반 영화 제작사(코리안미디어)에 맡아 정형화

된 모습을 탐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군중영화는 매년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3개 종교가 돌아가면서 제작하고 있다. 지난 2005년 가톨릭에 이어, 2006년은 개신교권이 촬영했으므로, 올해는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가 만들어졌다. 이번 영화는 지난 5월부터 시나리오 집필에 들어가 9월부터 촬영을 시작, 지난 11월 29일 완성돼 국방부에서 첫 시사회를 가졌다. VTR 60분물로 총제작비가 1억 8500만원이 투입됐다. 나경민, 정재근, 정호근, 정다혜 등 이렇다할 특출한 스타는 없었지만 국방부 시사회에서도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는 호평을 받았다. 최진철 코리안미디어 제작이사는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활동하면서 탄탄한 연기경력을 쌓아온 배우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다”며 “특히 이번 군중법사들이 철저하게 감수를 해 줘 종교적인 깊이를 표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사회를 지켜본 일반 군중교구장 스님은 “군중 영화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진 줄은 몰랐다”며 “불교를 직접 내세우지 않더라도 보는 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내용이 곳곳에 스며 있어 종교가 다른 장병들도 부담 없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가평=김주일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요품  
**복상불소영장친의식사용도**  
 (불사민연 공역을 맞으시며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소 병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 35 × 50cm (대) 42 × 65cm

**올마니반** (대) 60 × 20cm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항로

**흑단목 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8mm × 10mm × 12mm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항로** (대) 26 × 16 × 16cm, 155~600원 → 할인가 125,000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들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들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물인 금강약들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르기 금강약들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들 육각불이 80°C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작용시 백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작용하고 편안하게 얹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 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 차신분 ● 오심전,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십시오.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원적외선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원적외선 의료기기 인증번호: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가운 해도 온열복대를 건강하게 하리만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속담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담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속담(최고)보다 높은 고열(80°C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백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 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일과 질병들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농협 170-12-056037 정영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